

전 남

신안군 웰빙잡곡 주산단지

수수·녹두·팥콩·참깨 등 우량종자 농가 보급

내년 600ha 조성... 파종·수확작업 기계화 추진

신안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웰빙잡곡 주산단지 조성에 발맞추고 나섰다.

신안군은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저장성이 있고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조·수수·녹두·팥콩·참깨 등 원종급 우량종자를 확보해 재배를 설치, 우량종자를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녹두·기장·팥콩·참깨 등 4개 잡곡 재배 7.1ha를 조성해 총 15.4ha의 우량 종자를 생산 공급, 내년에도 600ha의 웰빙 잡곡 주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들 농작물들은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아 순도가 낮은 재래종 중심으로 재배해 품질과 수량이 낮고 농가 소득향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동안 녹두·기장·팥콩 등은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재배를 꺼리거나 대규모 면적 재배가 어려웠으나, 파종과 수확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품종과 기계가 개발·보급돼 밭작물 기계화작업이 가능해졌다.

녹두의 경우 수량이 높고 기계수확이 가능한 신종종 '다현녹두'가 보급돼 생력(省力)재배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다현녹두'를 100ha에서 재배한 결과 10a(300평)당 200kg을

생산 25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신안군은 현재 마늘과 양파 등 후(後)작물로 ▲콩 1700ha ▲참깨 900ha ▲녹두 200ha ▲수수 50ha를 재배하고 있다.

김을배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잡곡 재배포 관리를 잘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잡곡 브랜드 생산은 물론 생산비를 줄이면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섬 지역의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을 첫 베베기했어요”

7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들에서 올해 첫 베베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수확한 쌀은 '하늘아래 첫 쌀 순천 햅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한다. (순천시 제공)

‘목포의 눈물’ 음원 등록

하우스 뮤직 등 3개 버전...인터넷서 곡당 500원

목포시가 가요 ‘목포의 눈물’에 대한 새로운 음원을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음원은 ‘목포의 눈물’ 하우스·덤 스텝(Dub Step) 장르와 ‘해양문화축제 캠페인 송’ 등 3개 버전이다.

일렉트로닉(전자) 음악 장르 일종인 ‘하우스 뮤직’은 집안에서도 즐기기 쉬운 단순하고 춤추기 적합한 리듬감과 간결한 사운드 특징이며, ‘덤 스텝’은 매우 낮은 베이스와 툭툭하고 느린 템포의 리듬이 특징이다.

목포시는 “지난 7월말 음원 전문유통사(UKEK)와 계약을 체결

했다”면서 “이달 초부터 벅스, 멜론, M-NET, 소리바다 등 인터넷 음악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은 한 곡당 500원이며, 수익은 각각 목포시 35%·음원 유통사 15%·인터넷 50%로 배분된다.

박경곤 목포시 관광기획과장은 “목포를 홍보하는 데는 노래도 하나의 뛰어난 관광 상품”이라며 “앞으로 목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이순신 대교 전면통제

월내동~광양 중미동 9.582km 구간

13일부터 마무리 공사 끝날때까지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임시 개통했던 이순신 대교가 오는 13일 자정부터 공사 완료 때까지 전면 통제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전면통제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이순신 대교)을 위한 마무리 공사에 따른 것으로 통제구간은 여수시 월내동에서 광양시 중미동 9.582km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사완료 시점은 오는 11~12월쯤으로 올해 안에 개통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순신 대교는 여수시 묘도

와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경간(1.545km) 현수교이다.

당초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김충석 여수시장이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서 차려 건의, 박람회 개최전인 지난 5월 10일 임시 개통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안군 200곳에 ‘생태 둠벙’

신안군이 항구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 섬 여건에 맞는 소규모 생태 둠벙을 만든다.

신안군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330㎡ 이하의 소규모 생태둥벙 200개를

올해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둥벙 주변에는 꽃을 심어 경관을 아름답게 가꿀 예정이다.

둥벙은 조상들이 활용해온 농업 용수원으로, 산간계곡의 유량을 조금씩

모으고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뭇다가 가뭄 때(갈수기) 농업 용수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던 지혜의 수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둠벙을 대신할 저수지, 댐, 관개수로가 조성됨에 따라 한때 사라지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강진 전통된장 학교급식 공급

강진에서 생산된 전통된장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강진군은 순수 100% 강진산 콩과 5년 이상 숙성시킨 신안의 천일염을 사용한 강진 전통된장 1.2t을 이달 중

순부터 관내 58개소 학교에 공급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전통된장 가격이 너무 비싸 학교급식에서 공장형 된장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내 학교를 대상

으로 된장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전통 된장을 널리 알려 장류가공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전 북

군산 해망동 매립지 202만㎡ 체육시설·생태체험장 만들자

군산시, 갈등 빛는 서천군에 제안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해상매립지를 자연친화적인 상생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등 잇따른 사업에 반대만으로 일관하는 서천군의 무책임한 처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며 “서천군

이 주장하는 해상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쓰지 않는 과거의 용어로 국토부와 군산시가 진행하는 관련 사업 계획이나 용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단어”라며 서천군의 억지 주장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문 시장은 “해상매립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남겨놓기 위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발전을 스스로 저해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끝내

고, 해상매립지를 자연친화적인 공동의 상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는 하구둑 밑에 조성된 삼각주에 1985년부터 준설토를 쌓아 조성한 202만㎡의 인공섬으로,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곳을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통고추장 만들기 체험

전주 금암초등학교 학생들이 7일 순창 전통 고추장 정보화마을에서 전통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달오름·매동·춘향허브 마을 3곳

‘색깔있는 마을’ 선정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마을과 산내면 매동마을, 운봉읍 춘향허브 마을 3곳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색깔있는 마을’에 뽑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색깔을 도시민에게 알려 도·농 상생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농·어촌 100곳을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했다. 도내에는 모두 8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중 3곳이 남원에 있다.

‘색깔있는 마을’은 다양한 향토

음식, 자연경관, 즐길거리 등을 지닌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루랄(RURAL)-20 프로젝트 사업’ 선정(농식품부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농·어촌 20곳을 선정),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 마을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일선 학교 국감자료 요청 봇물 대비

전북교육청 ‘통계 콜센터’ 운영키로

전북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통계 자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업무경감대책을 내놨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통계성 공문의 경우 일선 학교가 아닌 ‘통계 콜센터 운영’으로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통계 콜센터를 운영해 시스템 통계 추출을 지원하면서 한편 주요 교육통계 자료를 교육정보통계 시스템에 탑재, 일선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 나이스, 에듀과인, 학교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자료도 전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주소리축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협약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제12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때 열린 ‘어린이 소리축제’의 홍보와 프로그램 공동기획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소리축제’는 9월13일부터 닷새간 열

리며 어린이 뮤지컬 ‘공작새의 황금깃털’과 판소리 스토리 박스 등 다양한 체험 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제12회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이성례미콘 ‘사랑의 쌀’ 100포 전달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한 이성례미콘(대표 김중오)은 최근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20kg 100포대(시가 440만원)를 남원시에 기부했다.

시는 기부받은 ‘사랑의 쌀’을 푸드뱅크를 통해 지정지역 저소득

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중오 대표는 “나눔경영 일환으로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며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군산시 중학생·학부모 대상 멘토링 하계캠프

군산시와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2년 학동기 부여 멘토링 하계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하계캠프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학교 2학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중학교 3학년은 대상으로 4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외고 창조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군산시 글로벌 더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서울대 등 재학생 10명과 서울 종로학원 강사 6명이 참여, 멘토별 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경찰 ‘배움터 지킴이’ 간담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지난 6일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학교폭력 이통상담소에서 김제시 배움터 지킴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하고 학교폭력·성범죄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경남 창원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의 범인이 60대 ‘배움터 지킴이’라는 사실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